

2014년 11월 10일 오늘의 아침편지

첫 만남, 첫 시선
初めての出会い、初めての視線

첫 만남에서
初めての出会いから

서로를 알아본다.
お互いをわかる

처음 만난 누군가에게서
初めて会った誰かから

당신이 이미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あなたがすでに好きなほかの人を

떠올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思い出した記憶があるだろう。肯定的な

연상 작용은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連想作用は、その人と近づきたい

생각이 들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켜준다.
気がするように、心の準備をさせてくれる

- 칼린 플로라의 《깊이 있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에서 -
- カーリン・フローラ〈深みがある関係はどう作るか〉より -

* 처음 만남에서
* 初めての出会いから

꽃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突き刺さる人がいます。

첫 시선에서부터 묘한 부딪침이
初めての視線から、妙にぶつかり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마치 오랫동안
お互いを引き寄せます。まるで長い間

만났던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마음의 빗장이
会っていた友人のように、気兼ねなく心の扉が

열립니다. 내 안의 유쾌한 주파수가
開かれます。私の中の愉快的な周波数が

그 사람의 긍정 에너지와 부딪쳐
その人の肯定のエネルギーとぶつかり

환한 빛을 냅니다.
明るい光を出します

연상 (聯想)
[명사] 連想.

묘하다 (妙—)

[형용사]

妙だ.

(교묘함) すぐれて巧みだ.

(이상함) おかしい; 変だ; 不思議だ; 腑に落ちない.

끌어당기다

[타동사] 引き寄せる; 繰り寄せる.

스스럼없이

[부사] 心安く; 気兼ねなく; 気安く.

빗장

[명사] (문빗장의 준말) 掛け金; かんぬき.

주파수 (周波數)

[명사] [물리] 周波数.

환하다

[형용사]

明るい.

広広としている; (前方が) ぱっと開けている; 見通(み...

(中身や織り目などが) 透けて見える.

2014년 11월 11일 오늘의 아침편지

'공감'의 메커니즘
'共感'のメカニズム

우리는 사랑과
我々は愛と

인생을 말하기 전에,
人生を話す前に

'공감'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共感'についてわかる必要がある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든,
なぜなら、どんな方法で愛を表現しようと

사랑의 근간이 되는 것은 공감이기 때문이다.
愛の根幹になることは共感だからだ

이 '공감'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この'共感'のメカニズムは、我々は

우리과 닮은 사람들에게
我々と似た人に

더 쉽게 공감하도록
共感しやすいように

만든다.
する

- 엘사 폰셋의 《인생은, 단 한번의 여행이다》 중에서 -
- エルサ・ブンセットの〈人生はただ一度の旅だ〉より -

* 공감이
* 共感が

공감을 낳고
共感を生んで

사랑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愛の波を引き起こします

공감 없는 사랑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共感のない愛は、砂の上の家と同じです

언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いつ崩れるかわかりません。共感のためには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하고,
さらに近づいて、耳を傾けなければならず

혼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魂がこもった視線で眺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20141111.txt

그것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それが共感の始まりです

닮다

[자동사] [타동사]

似る.

(ある物を)まねてそれに近くなる.

허물어지다

[자동사] 壊れる; 崩れる.

2014년 11월 12일 오늘의 아침편지

할머니의 품, 나만의 안전지대
祖母の懐、私だけの安全地帯

사실 내게는 아주 확실하게
事実私には、とても確実に

떠올릴 수 있는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다.
思い浮かべることができる私だけの安全地帯がある

어린 시절 자주 안겼던 외할머니의 따뜻한
幼い時節、よく抱かれた外祖母の温かい

품 안이다. 늘 바빴던 어머니 대신 내 옆에서
懐の中だ。常に忙しかった母の代わりに私の横で

젖가슴을 만지게 해주시던 외할머니는
乳房を触らせてくれた外父母は

내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을 채워주시던
私の幼い時節の愛情欠乏を満たしてくれた

분이었다. 외할머니 품 안에서 응석을
方だった。外父母の懐の中でだだを

부리는 상상을 하면 할수록
こねる想像をすればするほど

내 마음은 평온해졌다.
私の心は平穩になった

- 김준기의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중에서 -
- キム・ジュンギの〈倒れたその場所に留まるな〉 -

* 누구에게나
* 誰にでも

자기만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私だけの安全地帯があります

그곳에 몸을 맡기면 평온해집니다.
そこに身を任せれば平穩になります

마음속 풍량이 아무리 거칠게 일고,
心の中の波風が、いくら荒くても

머릿속이 아무리 복잡해도 모든 것이
頭の中がいくら複雑でもすべてのことが

고요해집니다. 할머니의 품 안.
静かになります。外祖母の懐の中

그 따뜻한 안전지대가
その温かい安全地帯が

그림습니다.

懐かしいです

품1

[명사]

上着の胸幅; 身幅.

胸と衣服との間隙.

懐; (ひゆ的に) 温かく迎え入れてくれるところ.

외할머니 (外—)

[명사] 外祖母; 母方の祖母. (=외조모)

젖가슴

[명사] 胸乳; 乳房のある胸のあたり (*主として女の胸(...

결핍 (缺乏)

[명사] 欠乏.

だだをこねる [駄駄を捏ねる]

떼를 쓰다; 응석을 부리다.

풍랑 (風浪)

[명사] 風浪; 波風.

거칠다

[형용사]

(피륙 등이) (布などの目が) 粗い; (결이) (木目などが) 細...

(순하지 않다) 激烈だ; 荒い.

(손버릇이) 手くせが悪い; 手長だ.

2014년 11월 13일 오늘의 아침편지

나를 바라보는 시간
私を眺める時間

나를 가둔다.
私を閉じ込める

최대한 생활을 좁혀 감옥을 만든다.
最大の生活を狭め、牢屋を作る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방편이다. 이는
自らを、引き締めるための手段だ。これは

무조건 내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고
無条件に力いっぱい走る車のブレーキを踏んで

잠시 내가 가야 할 뚜렷한 목적지를 설정하는
しばらく私が行くべきはっきりした目的地を設定する

작업이다. 단 며칠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作業だ。ただ数日でも私だけの時間を

갖기로 했다. 거친 파도에 휩쓸리듯
持つようにした。荒波に揉まれないよう

지내온 일상에서 조금 떨어져
過ぎた日常から、ちょっと離れて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私を眺める時間だ

- 이정숙의 《내 안의 어처구니》 중에서 -
- イ・ジョンスクの〈私の中の大きな〉より -

* 우리 인간이
* 私たち人間の

동물과 다른 것은
動物と違うことは

'나를 바라보는 시간' 이 있다는 점입니다.
'私を眺める時間' があるという点です

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 나를 잠시 점검하고,
行った道を、少し立ち止まり私をしばらく点検して

온 길을 되돌아보고, 갈 길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来た道を振り返り、行く道を見通すことです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털어내어
足りないことを見だし、あふれることは取り出して

거친 파도에 다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荒波に、もう一度体を飛び込むことです

내 안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私の中に私を眺めることができる

거울이 있습니다.
鏡があります

가두다
[타동사]
閉じ[押し]込める; 監禁する; 封じ込める; 囲う; ...
(水流を)ためる; 塞き止める.

좁히다
[타동사]
['좁다' の使役] 狭める; 縮める.
(너비·공간을) (幅や空間を)狭くする.
(범위 따위를) (内容·範圍などを)小さくする. (↔넓히다)

감옥 (監獄)
[명사]
監獄; 牢屋; 牢; 牢獄 ('교도소(矯正所)'의旧...
[역사] '감옥서(署)'의改称.

다잡다
[타동사]
嚴重に指揮監督する; 嚴重に取り締(...
用心深く処理する.
真面目になる; 心を引き締める.

방편 (方便)
[명사]
方便.
(수단) 目的のため利用される一時の手段; ...
[불교] 菩薩が衆生を教え導く便宜的(...

내달리다
[자동사] 力いっぱい走る.
뚜렷하다
[형용사] (분명함) はっきり[くっきり]している; 明瞭[明白]だ; ...

거칠다
[형용사]
(피륙 등이) (布などの目が)粗い; (결이) (木目などが)細...
(순하지 않다) 激烈だ; 荒い.
(손버릇이) 手くせが悪い; 手長だ.

휩쓸리다
[자동사] ['휩쓸다' の受け身] 荒らされる; 襲われる; 押し流され...

내다보다
[타동사]
(밖을) 外を見る; 眺める.
(앞일을) 見越す; 見通す; 予知する.

ひく [引く] 발음 재생 매우중요
13. 덜어내다. (↔足す) 14. 떼다; 공제하다. 15. 뽑다.

2014년 11월 14일 오늘의 아침편지

사교적인 사람
社交的な人

우리는
我々は

사교적인 사람들에게
社交的な人に

자연히 끌리기 마련이다.
自然にひかれてしまうものだ

폐쇄적인 성격이거나 낮을 가리는
閉鎖的性格や、人見知りをする

사람들보다는 말을 붙이기가 쉽기 때문이다.
人たちより、話しかけやすいからだ

물론 탁월한 대화 능력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もちろん卓越した対話能力で相手を平安に

해준다고 해서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してあげようとして、深みのある関係に発展することは

아니다. 그러나 근접성과 마찬가지로 붙임성은
ない。しかし、近接性と同じく愛想は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잠재성에
深みのある関係で発展する潜在性に

불을 붙여준다.
火を付けてくれる

- 칼린 플로라의 《깊이 있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에서 -
- カーリン・フローラの〈深みのある関係はどう作るか〉より -

* 사교성.
* 社交的

중요한 재능이요
重要な才能です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とてつもない競争力です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私がまず近づ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내가 먼저 미소로 다가가 상냥한 말을
私がまず、ほほえみで近づいて優しい言葉を

건네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과 감사,
か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の心の中の愛と感謝

기쁨의 엔진이 잘 작동돼야
喜びのエンジンがちゃんと動いて

가능합니다.
可能です

사교 (社交)
[명사] 社交.
へいさてき [閉鎖的] 발음 재생
폐쇄적. (⇔開放的)
人見知りをする 발음 재생 (표제어: 가리다)
낯을 가리다
근접 (近接)
[명사] 近接.
붙임성 (一性)
[명사] 愛想; あいそう; 人付き; 人当たり; 人づきあい; 当(...)
경쟁력
[명사] 競争力.
상냥하다
[형용사] 優しい; にこやかだ; 人懐っこい.

2014년 11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한층섭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ハン・チュンソプ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인생 나이테
人生の年輪

나무 속에는
木の中には

해마다 하나의 나이테가 만들어집니다.
年ごとに一つの年輪が作られます

우물처럼 샘처럼 등글게 목걸이를 하나하나
井戸のように、泉のように丸いネックレスを一つ一つ

제 속에 걸어 단단하게 아몰려 놓습니다.
自分の中にかけて、固く受けついでいきます

그렇게 확실하게 세월을 하나하나
そのように確実に、年月一つ一つ

잡아둘 수 있다는 건 놀랍습니다.
とっておくことができるのは驚きです

- 김하인의 《아침인사》 중에서 -
- キム・ハインの〈朝の挨拶〉より -

* 나무를 자르면
* 木をきれば

그 나무의 나이와 성장 여건을 알 수 있습니다.
その木の歳と成長環境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좁은 나이테는 여름이 메마르고 무더웠음을 말하고,
狭い年輪は、夏が干からび暑かったことを物語り

넓은 나이테는 강수량이 평소보다 더 많았음을
広い年輪は、降水量が平年より多かったことを

말해줍니다. 인간의 삶도 비슷합니다.
物語っています。人間の人生も同じです

자신의 노력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고,
自分の努力によって、身分が変わって

세월 속에 인생의 하나하나가 되어
年月の中で人生の一つ一つになって

인생 나이테가 만들어집니다.
人生の年輪が作られます

나이테

[명사] [식물] 年輪. (=연륜(年輪))

등글다

[형용사]

丸[円]い.

(모양이) 円形[球形]である.

[자동사] 丸[円]くなる.

단단하다

[형용사]

堅[固·硬](かた)い.

(굳다) 柔らかくない; 堅固だ.

(속이 차서) 中味が充実している; しっかりしている.

아물리다

[타동사]

[‘아물다’의使役](상처를)(傷を)いやす.

(일을)(仕事を)とりまとめる.

(셈을)しめくくる; けりをつける.

여건(與件)

[명사] 与件; 所与.

메마르다

[형용사]

(土地が)干からびている; (地味が)やせている.

肌の脂気が抜けて滑らかでない.

(人情に)潤いがない.

むしあつい [蒸(し)暑い] 발음 재생

무덥다. [문어형][ク]むしあつし

강수량

[명사] 降水量.

신분(身分)

[명사] 身分.